

企業經營戰略으로서의 特許

企業은 特許 部署 活性化로 技術開發

I. 머리 말

오늘날 우리는 情報化社會에 살고 있다.

情報化社會에서 企業活動을 활발히 하려면 競爭에 이기는 길밖에 없으며, 企業間의 競爭의 커추를 결정하는 것은 技術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企業競爭의 특징은 新技術을 획득하는 競爭과 그 技術을 활용하는 競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特許制度는 최초로 新技術을 開發한 者에게만 獨占權을 주어 特許權의 獨占的 活用을 인정하기 때문에 他社의 特許權에 대한 對策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特許管理이며, 오늘날과 같이 技術競爭이 심한 産業社會에서는 特許管理의 良否에 따라 企業의 存亡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經營戰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新製品開發이 重要視되고 있으며 이것과 一體化된 機能을 갖는 特許管理는 요사이 더욱더 各광을 받고있다.

그와 더불어 特許管理部門의 業務범위는 擴大·高度化되어 企業經營戰略의 擔當者로서 最高 經營者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企業을 둘러싸고 있는 더욱더 艱難한 狀況을 고려할때, 特許가 갖는 多樣한 機能을 武器로 戰略的인 展開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特許管理擔當者의 資質을 向上시켜 나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企業經營上의 運營이 要請되고 있다.

그러나 技術革新을 創出하여내는 發明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되며, 이를 포용하는 特許가 企業의 經營戰略에서 어떻게 利用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發展시켜가야 할 것인가에 對하여는 등한한것 같다.

貿易摩擦을 둘러싸고 非關稅障壁으로서의 有效한 手段으로서 特許障壁들이 先進國 企業들에 依해서 많이 利用되고 있는 傾向이 있는바 앞으로 國際化에 對處하여 나아가야할 우리의 立場에서 이 方向의 事前研究와 警戒를 제출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세계는 農業革命, 産業革命에 이어 第3次 産業革命 물결속에서의 技術革命의 時代에 접어들었다.

技術革命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強化하여 經濟成長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은 무엇보다도 技術革新을 創出해 내고 이를 蓄積·利用·保護·發展을 效果의으로 할 수 있는 特許管理를 企業의 重要課題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실정을 省察하여 經營者는 特許管理의 先見性을 먼저 체득하여 이 分野에 과감한 投資와 努力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管理(I)

促進해야



全 吉 鎬
(本會 調査部長)

II. 企業活動과 特許管理

1. 特許管理의 必要性

企業이 特許를 對市場 戰略武器로 利用하기 위하여서는 新製品開發에 必要한 國內外의 關聯 技術文獻을 調査하여 研究開發部署에 提供하여야 한다.

特許管理에 의해서 企業이 앞으로 研究開發함이 바람직한 新製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技術品目에 대한 諸情報를 蒐集하여 研究者 또는 技術實務陣에 提供하고 研究者나 實務技術陣으로 하여금 公知技術의 重復研究에 따르는 不必要한 努力과 費用의 過多支出을 抑制하고 國內外 同種 業界의 新技術을 수시로 入手하여 利用할 수 있게 하며, 同業他社에서 現在 어떠한 技術에 대한 權利를 確保 또는 推進중에 있는지의 與否 등 業界의 新製品開發의 趨勢와 動向을 迅速 正確히 把握할 수 있고 自社開發 可能品目에 대한 他人의 特許權을 讓受(또는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設定) 받는다는가, 아니면 他人의 特許內容을 利用 改良하여 더 좋은 新製品을 開發하도록 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利點이 있다.

또 特許管理를 함으로써 特許公報 監視業務를 不斷히 할 수 있어 特許出願을 위한 事前調査와 息결있는 他人의 特許出願에 대한 異議申請 및

이달의 目次

- I. 머리말
- II. 企業活動과 特許管理
- III. 特許管理의 體制 및 組織

〈다음號에 繼續〉

審判資料를 入手할 수 있고 自社の 特許權과 他人의 特許權과의 關係에 있어서 權利에 相互抵觸을 避할 수 있는 基礎資料를 提供해 준다.

여기에서 特許管理가 必要한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技術競爭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特許管理의 良否에 따라 企業의 存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特許管理의 利點

特許管理를 위한 情報蒐集源이 되고 있는 特許公報類에는 國內外의 수많은 研究者·科學者 技術者·企業인들이 各各 自己 나름대로의 職務와 專功에 따른 온갖 새로운 技術的 創生物을 紙上에 公表하는 知識을 交流시켜주는 「아이디어의 交叉路」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企業은 特許管理活動을 通하여 항상 特許情報源인 特許公報類에 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언제나 새로운 着想과 새로운 技術的 知識으로 改造내지 創生해 낼 수 있는 動機를 自體에서 誘發시켜 주게 되므로 特許管理活動을 게을리하지 않는 企業은 他企業을 누르고 市場競爭에서 一次的인 勝利를 거둘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特許管理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3. 特許管理의 基本

오늘날의 特許管理는 特許制度에 따른 사회환

경의 변화, 特許管理에 대한 수요의 변화등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들면 經營情報·技術情報로써 企業經營에 필요한 特許情報活動·研究開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特許活動·企業活動의 전략적 전개를 위한 特許權의 活用등이 주목되고 있다.

企業이 치열한 技術競爭의 와중에서 技術力を 집중하여 他社보다 한발 앞선 先行技術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特許權의 取得과 活用, 他社特許에 대한 對策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特許管理業務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1) 出願 및 權利化
- (2) 權利의 保全
- (3) 契約
- (4) 特許侵害등의 紛爭處理
- (5) 先行技術의 調査

▲出願·異議申請·無效審判

▲開發計劃의 確保

▲Patent map등의 作成

- (6) 特許情報의 수집 및 활용
- (7) 社內 特許教育
- (8) 保有 工業所有權의 有効活用
- (9) 經營戰略(戰略策定, 戰略의 意思決定등에의 참여)

여기서 特許權 取得의 目的은 自社の 製品과 技術의 保護에 있으며 研究開發 成果를 보호하는 것이다.

特許權의 活用이란 企業間的 技術競爭 및 企業戰略의 무기로서 特許權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企業이 技術을 開發하여 製品을 製造·販賣하는 이상 他社特許에 대한 對策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企業戰爭중에서 상대방의 特許공격으로부터 企業을 保護함으로써 他社特許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Ⅲ. 特許管理의 體制 및 組織

1. 體制의 基本形態

1) 特許管理를 수행하기 위한 條件

企業에서 特許管理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特許管理體制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體制에 있어서는 特許管理를 분담하는 각각의 部門이 다양한 特許管理를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 條件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管理體制를 정비 확립해 가야 하는데, 그러한 條件 3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多面的인 特許管理를 분담하는 各 部門의 責任의 明確化

▲特許管理 관계 各 部門은 特許에 관한 지식과 能力을 具備

▲各 部門間的 긴밀한 연락과 協力體制 具備

2) 特許管理體制를 構成하는 主要部門의 역할

企業에 있어서 特許管理 담당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광범위한 部門에 미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經營部門·發明部門·實施部門·特許部門으로 나누어 企業에 있어서 特許管理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① 經營部門

企業活動을 지휘하는 最高經營者는 企業活動을 이끄는 企業戰略의 수단으로서 特許機能을 活用해야 한다.

즉 新技術·新製品의 開發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開發의 성과를 特許化해야 하는가를 고려하고, 他社 技術의 使用등에 대한 것은 經營部門의 責任이다.

또 당연히 發明部門인 研究部門 및 技術開發部門에 필요한 開發을 시키고 그 성과를 特許로써 權利化하는 것도 經營部門 政策의 일환이다.

요컨대 經營部門은 다음과 같이 企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도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다.

▲企業의 特許政策 및 特許管理방침을 결정한다.

▲特許管理 機能을 충분히 발휘시킬 責任을 가질 수 있는 體制와 組織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發明部門

發明部門은 新技術·新製品을 開發하는 部門과 新技術·新製品의 課題를 제공하는 部門등이지만, 市場의 需要를 파악하는 營業部門등도 發

명의 課題를 수집하는 立場에 있으므로 완성함과 동시에 그 發明을 特許部門으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權利취득에 대하여 特許部門과 協力하여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實施部門

發明을 製品化하고 生産·販賣하는 部門, 혹은 라이선스등에 의해 技術을 活用하는 部門이 實施部門인데, 自社 技術과 特許權을 有効하게 活用하는 역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역할로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他社 特許를 침해하지 않도록 事前調査를 한다.

▲他社 出願 및 他社 特許情報를 감시하고 障害特許를 배제한다.

▲他社 特許事件의 해결을 推進한다.

▲필요할 때 他社 特許의 實施허락을 받는 등과 같은 他社 特許對策活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他社 特許對策은 實施部門과 特許部門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④ 特許部門

特許部門은 特許등의 工業所有權의 취득 유지, 他社 權利的 배제, 침해사건의 처리, 저촉감정, 特許契約, 特許情報活動, 그외의 전문적사업의 實行部門과 함께 經營部門·發明部門·實施部門에 대한 스태프적·자문적 역할을 가진 部門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最高經營者の 스태프적 역할이다.

企業에 있어서 特許管理의 전체적 수행은 본래 最高經營者の 책임이지만 特許部門의 책임자는 最高經營者の 스태프로서 特許管理上の 政策 및 施策을 立案하고 進言해야 하는 立場이다.

또한 最高經營者の 권한위임을 받고 最高經營者の 立場에서 企業內 各 部門이 분담하는 特許活動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도록 管理한다.

또 特許部門은 企業이 特許問題에 관해 社外에 대한 行動에 대하여 企業을 대표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經營部門의 대행적 機能도 特許部門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2. 組織上的 位置

企業의 組織중에서 特許部門이 어떤 形態의 위치에 놓여 지는가는 본래 그 企業의 特許管理에 대한 방침 및 需要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最高經營者에 직속

▲研究開發部門등의 技術系部門에 소속

▲總務部·法務系등의 法務系에 소속한다. 또 特許部門이 組織上 사장 직속인 경우에도

▲社長직속

▲技術系 任員의 관장하

▲總務·法務系 任員의 관장하인 것이 일반적이다.

상술한 것 중에 技術系 혹은 法務系중에 어디에 속하는 가는 企業이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表 1>은 特許部門의 組織上的 위치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나타낸 표이다.

여하간에 特許部門은 經營의 首腦에 직결해 있을 필요가 있고, 法務系 혹은 技術系 任員의 관장하에 있는 경우에도 研究·設計·製造·總務·法務등 各部門의 下部組織이어서는 안된다.

特許部門의 역할과 기능에서도 분명하지만 特許部門은 企業의 特許活動을 리드하는 핵심이고 企業內 各 部門에 대해 스태프적 기능·特許管理的 기능·特許專門家的 기능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特許管理面에서 때로 감독, 지도해야할 立場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部門의 아래에 속한다면 충분한 그 기능을 완수하기가 곤란하다.

特許部門의 組織은 企業이 기대하는 特許管理 기능을 완수해 감에 무엇보다도 會社의 特性에 맞는 핵심적 組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業務의 규모 및 변화에 대응하여 再認識하고, 보다 나은 組織으로 再編成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表 1> 特許部門의 組織上 位置에 따른 장점과 단점

組織上의 位置	장 점	단 점
最高經營者에 직속	<p>▲最高經營者의 意志를 포착하기 쉽다.</p> <p>▲企業戰略에 입각한 特許活動을 실시하기 쉽다.</p> <p>▲特許活動의 情報를 직접 最高經營者에 전달하기 쉽다.</p>	<p>▲研究開發部門등 現場으로부터 情報포착이 곤란하다.</p> <p>▲技術系部門과의 접촉, 研究開發에 밀착한 特許管理에 대하여 노력이 필요하다.</p>
技術系部門에 소속	<p>▲研究開發에 밀착한 特許管理가 용이하다.</p> <p>▲專門技術지식 및 技術동향에 접하기 쉽다.</p> <p>▲專門技術上의 助言을 구하기 쉽다.</p>	<p>▲最高經營者의 意志를 직접 포착하기가 어렵다.</p> <p>▲企業전체에 대하여 特許管理的 책임을 인수하기가 어렵다.</p> <p>▲特許活動의 情報를 직접 最高經營者에게 전달하기가 어렵다.</p>
法務系部門에 소속	<p>▲계약·침해배제·소송등 수속업무 또는 절충업무의 실시에 유리하다.</p>	<p>▲上同 외에도 ▲研究開發동향 및 專門技術지식을 포착하기가 어렵다.</p> <p>▲專門技術上의 助言을 구하기가 어렵다.</p>

3. 組織의 類型

管理方式으로부터 特許管理組織의 類型을 보면 다음 3가지 形態로 나눌 수 있다.

1) 集中管理型과 分散管理型

分散管理型은 企業의 組織형태에서 研究所와 事業部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特許關聯 職제의 중심은 發明이 발생되는 원점에 위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特許管理 職능을 研究部門, 設計部門등에 분산하는 方式이다.

이에 대하여 集中管理型은 本社에서 일괄하여 集中管理하는 方式으로 각 研究所 및 事業所에 연락원을 두고 있다.

2) 全員管理型과 單純管理型

全員管理型은 特許管理를 企業의 經營政策의 일환으로 技術의 保護와 利用이라는 광범위한 形態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研究者나 技術者에 대한 단순한 서어비스 職제가 아니라 制度的으로 企業全體가 發明의 獎勵·權利化 및 産業動向을 파악하는 業務를 수행하는 方式이다.

이에 대하여 單純管理型이란 特許部, 特許課, 特許係등이 職제상 배치되어 있는 形態이다.

이 職제에는 전임 特許業務 담당자가 있으며 研究開發→設計→製造→販賣의 일련의 作業직제로부터 발생하는 特許出願수속이나 發明者에 대한 特許相談·職務發明의 보상·權利의 보존등 特許活動에 관계되는 일체의 業務를 인수하는 形態이다.

3) 共同管理體制

同業者 또는 系列會社와 공동으로 特許管理 職을 채용하는 形態이다. (☞) <계속>

(案) 第28回 發明教室 (內)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들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欲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6月中 第28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 時 : 1986年 6月 14日 (土) 午後 1시
- ◎ 場 所 : 特許廳 研修室 (풍림빌딩 10층) (參加費 없이 教材無料提供)
- ◎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7-1077/8)